

제176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일본영화 속의 가족상의 변천 -오스야스지로(小津安二郎)작품과 야마다요우지(山田洋次)작품에 나타난 프로젝트로서의 「가족」의 가능성-

강연자: 양지원(梁智嫻)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양지원 객원연구원의 세미나가 10월 14일 국제대학원 107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일본영화 속의 가족상의 변천'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약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양지원 연구원은 일본근대 역사상 중요하고 특수한 시기인 전후 초기와 고도성장후기에 제작된 일련의 영화작품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프로젝트로서의「가족」의 가능성을 검토해가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음을 밝히며 특히 오즈야스지로의 작품 군과 야마다요우지 『남자는 괴로워(男はつらいよ)』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가족」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가족」이라는 관계성은 가족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상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관관계에 있으며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기 때문이다. 일본에 있어서 현재 가족의 모습은 '다양화', '개인화', '무연사회'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고, 혼외자녀를 둘러싼 견고했던 민법이 2013년 115년만에 개정되기도 하는 등의 계속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족은 개개인의 현실생활에서 실천되는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극히 개념적이고 문화적인 인간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양지원 연구원은 영화라는 미디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미지로서의 가족을 분석 대상으로 다루었다. 특히 「영화」 속 「가족」에 주목했던 이유는 「프로젝트」로서 제한된 「가족」을 고찰하는데 가장 유효하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 열린 미디어가 영화라고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양지원 연구원은 연구의 출발점으로 2013년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가족영화인 코레에다 히로카즈(田口浩三)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そして父になる)』를 주목하였다. 이 영화는 뒤바뀐 아이라는 소재를 통해 작위적으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주제를 아주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 또한 일본영화 속에서 모색·검토되어 온 작위적으로 구성된 것으로서의 가족의 계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계보 속에서 구체적으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오스야스지로와 야마다요우지 감독의 작품인 것이다.

가족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프로젝트'의 의미는 넓은 의미에서는 하버마스가 말하는 것과 중복된다. 하버마스는 근대성을 미완성의 프로젝트로 파악했다. 단 본 연구에서는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서 가족을 만들어가는 작위의 총체를 프로세스로서 파악할 때 그 프로젝트는 긴장감과 모순, 균열이나 갈등도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시행착오」의 프로세스로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프로젝트로서 가족이 안고 있는 갈등이나 시행착오를 동시에 파악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 한계까지도 살펴본다. 오즈와 야마다는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단순히 자연적인 것, 그대로 방치해도 형성되거나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서 보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전후 초기와 고도성장후기의 오즈와 야마다는 작품을 역사적 국면에서 재해석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오구마에이지(岡村英二)의 '제1의 전후'와 '제2의 전후'의 특징에 주목하였다. 전후 초기(제1의 전후)의 오즈야스지로는 달성할 목표로서 이상적인 가족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고도성장후기(제2의 전후)인 야마다요우지는 기존 질서화된 전후 가족과는 상이한 새로운 가족의 정체성을 모색하였다.

전후 초기의 오즈영화의 특징으로서 일본에 있어서 이 시기는 미국 점령기(1945-52년)로서 전후 가족이 이상으로서 다루어지고 그 이전의 가족관계가 중점적으로 문제시되었다. 또한 종전의 가부장적인 「이에」제도가 폐지되고 남녀평등이 철저하게 주장되었다. 그 속에서 가족은 개인중심의 가치관이 정착해간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나가야 신사록(口口口口録)』과『늦봄(口口)』에서 가족에 대한 배타성에 대해,『바람속의 암탉(口の口の口鶏)』과『무네가타 자매(口口口口)』에서는 단절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초여름(麦口)』과『동경이야기(口口口口)』에서는 제각기 흩어지는 가족의 모습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예고의 출현과 함께 더욱 강조된「주체적 결단」에 주목하였다.

반면, 고도 성장 후기의 야마다의『남자는 괴로워(口はつらいよ)』는 베트남전쟁으로 학생운동이 격화와 안보투쟁도 있었던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말에 만들어진 작품들이었다. 이 시기에는 전후적 가치관에 대한 이의제기가 일어났던 시기로 야마다는 이런 전후적인 가치관을 가족을 통해 다시 한번 되물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가족은 이 시기에 전면에서 나왔던 표준적인 핵가족,「가족애」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것과 대비되는 가족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작품을 만들었고, 이 작품을 통해 감독이「 어디까지가 가족인가」,「가족」의 관계성,「의사를 실천하는 가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가족을 자명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작위적인 구성」이라는 야마다와 오즈의 문제설정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3년 야마다는『동경이야기(東京物語)』의 모티브에 따라『동경가족(東京家族)』을 통해 현대 일본가족을 그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질의 응답>

질문: 2013년 『동경가족(東京家族)』에서 보여지는 가족상이 과거의 가족상과 비슷하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답변: 영화의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다. 기본적인 구조라는 의미는 예전에『동경이야기(東京物語)』 둘째 며느리가 하던 역할을 지금『동경가족(東京家族)』에서는 둘째 아들이 하고 있다. 가족이 붕괴되어가고 가족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인물을 둘째 아들을 통해 보여준다. 하지만 등장인물의 변화가 있었다.『동경가족(東京家族)』에서는 혼자 있는 고독한 개인이 강조되었고 1953년에서 볼 수 없었던 혼자 남을 수 밖에 없는 개인이라는 부분에 마지막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질문: 가족이 붕괴되고 고독해지지만 가족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이 있을까? 고독해서 갈라지는 가족은 무슨 끈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답변: 가족들이 서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가족이 서로를 요구한다는 것은 남아 있고, 서로가 그것을 인정해 가면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를 가족의 관계성이라고 보았다. 2014년 현재에는 야마다요우지의『남자는 괴로워(男はつらいよ)』에서 나온 가족상이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질문:『남자는 괴로워(口はつらいよ)』는 기본적으로 가족이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같이 동경하며 간다라고 하는 점인데 현재는 가족이 전부 혼자서 살거나 붕괴되고 있는데 그때의 가족이라고 하

는 것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다른 사회공동체로 대체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가족이 그냥 얘기하면 생각나고 아니면 생각나지 않은 그런 가족인가? 이전 고도성장의 가족과 다른 모습이 보이는가?

답변: 『동경가족(東京家族)』에서는 고독감을 그렸다고 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남자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지고 있다.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나타는 것이 이웃이다. 가족들도 돌봐주지 않는 것을 이웃이 돌봐준다는 면이 『동경이야기(東京物語)』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실태로서의 가족과 프로젝트로서의 가족의 차이점은? 인류학에서 가족이라는 점은 성적인 결합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주가 되는데 프로젝트로서의 가족이 이런 쪽으로는 나타나지 않는가?

답변: 실제적인 가족과 구별되는 개념적인, 이미지 적인 가족을 나타내는 것이 프로젝트이다. 특히 오즈와 야마다는 성적인 것을 배제한 가족의 모습,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는 작가로서 유명하다. 실제적인 가족의 모습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미지로서의 가족의 모습이 더 많다.

질문: 일본이 근대화가 메이지유신 이후 1920년대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전후에 '이에'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마이홈'주의도 전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감독의 작품세계에 따라서 역사적 흐름과 상관없이 이야기를 전개할 가능성은?

답변: 일본에서 크게 가족의 흐름이 두 가지 있는데 1) 20년대 후반 도시화 근대가족이 성립했다, 2) 패전이후 근대가족이 나타났다 가 있다. 본인은 2)의 전후의 근대가족과 핵가족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마이홈' 주의라는 것도 그 전에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경제성장 60년대 이후 홈 드라마에서 그런 분위기를 주로 다루었다. 마지막 질문은 그런 면이 있다고 동의한다.

질문: 메이지 민법이라는 체제에서 가부장제도가 붕괴되고 새로운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즈 감독이 전전과 전후의 가족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답변: 오즈의 초기 작품에서는 전전 미국영화에 빠져 살고 그런 류의 영화를 만들었지만 45년 이후에는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겠다 다짐하고 관객에게 도움을 주는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57년부터 영화가 어두워지고, 그 후에는 가벼운 코미디식으로 영화가 달라지게 된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너무 외롭다' 라는 식으로 영화가 끝이 나곤 하는데 오즈감독의 나이와도 연관이 된 것으로 본다.